

#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김설환<sup>1</sup>, 손정락<sup>2\*</sup>

<sup>1</sup>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sup>2</sup>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Mediating Effect of Defeat and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ul-Hwan Kim<sup>1</sup>, ChongNak Son<sup>2\*</sup>

<sup>1</sup>National Forensic Hospital

<sup>2</sup>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N=86)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 범죄자, 패배감, 속박감, 우울,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feat and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sample of 86 patients in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depression, defeat,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The data from pati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As a result, defeat and entrapme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dicating that depression indirectly affect suicidal ideation through defeat and entrapment. Finally,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to prevent suicides by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ly Disordered Offender, Defeat, Entrapment,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 1. 서론

세계적으로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매 40초 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1]. OECD '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

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고,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2]. 정부와 민간 기구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라는 오

\*Corresponding Author : ChongNak Son(Email: jrson@jbnu.ac.kr)

Received March 6,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3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명을 벗지 못하였다[3]. 그러므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위험성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집단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일반 인구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더욱이 '치료감호법'에 의해 감호 수용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요구된 정신장애 범죄자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 뿐 아니라 법적 처벌에 따른 구금 스트레스 등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정서적인 결함과 인지적인 결함, 빈약한 생존기술과 사회기술, 약물오남용, 심리적 외상과 성격장애 등 복합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고, 자존감이 낮으며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높은 분노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36]. 이와 같은 독특한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은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기질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수감생활 중 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실제 자살시도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5].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살중재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되고, 자살행동은 자살을 제외한 자살생각, 자살위험 및 자살시도로 분류된다[6]. 자살생각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며, 치명성 정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치료와 교육 장면에서 다루어주며, 더 나아가 사회 정책 등을 보완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7,8,37-40].

전통적으로 자살위험요인을 예언하는 대다수의 연구는 다양한 정신병리 가운데 우울에 초점을 맞추었다[9]. 이는 주요 우울증의 평생 사망률이 2-7%로 우울환자는 자살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10] 우울 단독으로도 자살생각의 60% 이상을 설명하며[11],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최고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12].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은 주요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신세증상과 달리 무가치감, 죄책감, 절망감 등 심리적인 불편감이 특징적이다[13]. 게다가 법적 구속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

감된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패배감과 속박감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과 연관된 주관적 지각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에 최근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을 자살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탐색하고 검증하고 있다[14-16].

패배감과 속박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illiams의 고통 호소 모델(Cry of Pain model; CoP model)을 수정한 자살의 도식적 평가모델(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에서는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가 패배감과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7]. 패배감은 우울이나 불안, 자살과 같은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8,19], 반복적 자살 시도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는 반복적 자살행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 속박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20]. 국내 연구에서도 패배감과 속박감은 우울취약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매개하였다[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은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수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직면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치료감호법 제 2호 처분 대상자(물질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3호 대상자(성폭력 범죄자), 그리고 여성 피치료감호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주요 정신질환에 따른 우울 증상이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매개 과정을 통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정신증이나 기분장애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

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약물중독환자와 정신성적장애환자를 일단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성차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 환자 역시 배제하기로 하였다.

## 2.2 도구

### 2.2.1 우울

우울증 선별도구(PHQ-9)는 우울 증상 심각도 수준과 우울증 선별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최근 2주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한다[21].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점(거의 매일)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 총점은 27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주요우울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최홍석 등[22]이 국내에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2.2.2 패배감

패배감 척도는 자신의 현재 상태나 지위에 대한 상실 및 현재 지위를 지키고자하는 시도와 관련된 실패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한다. Gilbert와 Allan[18]이 개발하였으며, 이소영 등[2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패배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Defeat Scale; K-DS)를 사용하였다. Gilbert와 Allan[18]의 패배감 척도는 16문항이었지만, 이소영 등[23]이 타당화한 한국판 패배감 척도는 4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12문항(1~5점 범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패배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2.2.3 속박감

속박감 척도는 현재 처해진 부정적인 상황, 관계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Gilbert와 Allan[18]이 개발하였고, 이종선과 조현주[24]가 타당화한 한국판 속박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ntrapment Scale; K-ES)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2.4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생각 척도는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민섭 등[25]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2.3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치료감호소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1-219577-AB-N-01-201706-HR-004-02, 승인유효기간: 2017.7.12.~2018.7.11.)이 이루어진 후에 각 병동의 협조를 얻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병동 별로 설문조사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본 연구자(임상심리전문가 및 심리학 박사수료)가 직접 병동에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그들에 한하여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 참여자들이 여분으로 소지가 가능한 생필품(치약, 천원 내외)을 제공하였다. 총 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무응답이 많았던 2부를 제외하고 총 8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4 자료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8.0이 사용되었다. 우울, 패배감, 속박감 및 자살생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 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가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45.8세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study population (N=86)

	Characteristic	N(%)	
Age	20s	4(4.7)	
	30s	18(20.9)	
	40s	37(43.0)	
	50s	23(26.7)	
	over 60s	4(4.7)	
Schooling	lack of schooling	2(2.3)	
	Elementary School	9(10.5)	
	Middle School	12(14.0)	
	High School	52(60.5)	
	University graduation	11(12.8)	
Type of crime	parricide, attempted parricide	24(27.9)	
	murder, attempted murder	20(23.3)	
	arson	10(11.6)	
	theft	3(3.5)	
	sexual violence	9(10.5)	
	violence, injury	12(14.0)	
	robbery	2(2.3)	
	property damage, etc	6(7.0)	
	Final diagnosis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80(93.0)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4(4.7)
Personality disorders		2(2.3)	

3.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Table 2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을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인들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울은 패배감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 $r=.513, p<.01$ ), 속박감( $r=.482, p<.01$ ), 자살생각( $r=.449, p<.01$ )의 순이었다. 패배감은 속박감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 $r=.868, p<.01$ ), 자살생각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r=.559, p<.01$ ). 속박감도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r=.570, p<.01$ ).

Table 2. Correlation Matrix,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1	2	3	4
<i>M</i>	4.78	26.83	37.88	6.88
<i>(SD)</i>	(4.48)	(13.02)	(15.71)	(6.77)
1		.513**	.482**	.449**
2			.868**	.559**
3				.570**
4				

1: depression, 2: defeat  
3: entrapment, 4: suicidal ideation  
\*\* $p<.01$

3.3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패배감과 속박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차에 따랐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두 번째에서보다 세 번째에서 줄어들어야 한다(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이때 만약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패배감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Table 3. Mediation effect of defea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tep	IV	R2	F	B(β)
1	A→B	.263	29.252***	1.489(.513)**
2	A→C	.202	19.956***	.665(.449)**
3	A→C	.350	20.749***	.336(.226)
	B→C			.228(.445)**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defeat, C: suicidal ideation  
\*\*\* $p<.001$

Table 3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패배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패배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 $\beta=.513, p<.001$ )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449,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 매개변수인 패배감을 추가하여 우울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패배감은 자살생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 $\beta=.445, p<.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우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패배감이 완전매개(complete mediating)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패배감과 상관성이 높은 속박감도 패배감과 마찬가지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절차는 패배감의 경우에서처럼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차에 따랐다. 패배감과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참고).

Table 4.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tep	IV	R2	F	B( $\beta$ )
1	A→B	.232	24.167***	1.658(.482)***
2	A→C	.202	19.956***	.665(.449)***
3	A→C	.354	20.554***	.348(.235)
	B→C			.192(.448)***

IV: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ntrapment, C: suicidal ideation

\*\*\* $p < .001$

####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수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직면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패배감, 속박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온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27-29]. 그리고 우울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패배감이 높은 사람들은 속박감 역시 높은 경향이 있어 이 두 변인들 간 상관의 범위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r = .868$ ). Taylor 등[30]의 연구에 의하면, 패배

감과 속박감 두 변인은 단일 요인구조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패배감과 속박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 패배감과 속박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등 자살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 검증에 따른 결과를 보면, 패배감과 속박감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과 연관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Johnson 등[17]의 자살 도식적 평가를 잘 반영하는 결과이며, 반복적 자살행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 속박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이 나타나기 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생각을 보고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패배감과 속박감과 관련된 사건, 특히 한정된 공간에 오랜 기간 수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정신상태와 이로 인한 수용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31]. 또한 치료 장면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을 경험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주어진다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우울제와 항정신성 약물 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패배감과 속박감의 경우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이므로, 최윤영 등[16]이 언급한 부정적으로 자기지향화된 사고와 감정에서 벗어나 탈중심화하는 마음챙김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 한정된 공간과 환경이라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등도 패배감과 속박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4,32].

한편, 우울은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패배감과 속박감의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신증이나 기분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패배감과 속박감의 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

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우울 단일 요인만으로도 자살생각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기에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생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 정서(우울, 분노 등)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3].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자살 관련 선행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신장애 및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였기에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교정기관 내에 장기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교정기관 내 장기수형자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34]. 장기수형자들이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상실감 등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정신장애 남성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정신장애 여성 범죄자를 추가하여 비교하는 연구와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변인들 간 시간적, 논리적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예측변인들 간 인과적 선후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을 각기 다른 요인으로 명명하고 적용하였는데, 연구 결과, 패배감과 속박감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각 변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재희[15]와 같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다른 요인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각 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라는 실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를 적절히 다루어줄 수 있는 치료적 개입 및 제도적 보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1] Bertolote, J. M. & Fleischmann, A. (2005). Suicidal Behavior prevention: WHO perspectives 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C Seminars in Medical Genetics*, 133C, 8-12.
- [2] OECE. (2015). *OECD Health Data 2015* :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3] OECD. (2012, 8, 21). *OECE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1-en>
- [4] Jae, Y. M. (2004). Suicide and psychotic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0(1), 3-10.
- [5] Stålenheim, E. G. (2001). Relationships between attempted suicide,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violent criminality in a Swedish forensic psychiatric population. *European Psychiatry*, 16, 386-394.
- [6]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Pergamon press.
- [7] S. H. Kim & C. N. Son. (2010). The effects of K-MBSR based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impuls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189-204.
- [8] M. S. Shin, K. B. Park & K. J. Oh. (1991).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286-297.
- [9] Jeglic, E. L., Pepper, C. M., Vanderhoff, H. A. & Ryabchenko, K. A. (2007). An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in a college sampl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 41-56.
- [10] Turecki, G. (2005). Dissecting the suicide phenotype: The role of impulsive-aggressive behaviours. *Journal of Psychiatry & Neuroscience*, 30(6), 398-408.
- [11] S. P. Yook. (2002).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12] S. J. Cho et al. (2002). Prevalence of suicide behaviors(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nd risk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1(6), 1142-1155.

- [13] Susana, M., Jose, O., Jaime, G., & Teresa, D. (2012).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clinical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patients with stable schizophrenia. *Comprehensive Psychiatry*, 53(2), 145-151.
- [14] J. H. Kim. (2017). *Effects of Acceptance-Commitment Therapy(ACT) on psychological acceptance, defeat,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15] J. H. Jung. (2016). *The effect of middle-aged men the entrapment on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efeat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 [16] Y. Y. Choi, H. J. Cho, J. H. Kwon & J. S. Lee. (2013).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apment and defeat.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3(3), 423-443.
- [17] Johnson, J., Gooding, P. & Tarrier, N. (2008). Suicide risk in schizophrenia: Explanatory models and clinical implication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 55-77.
- [18] Gilbert, P. & Alle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 585-598.
- [19] S. Y. Lee, H. J. Cho, J. H. Kwon & J. S. Lee. (2014). The effect of defeat on anxiety/depressi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elf-cognition and entrapment.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2), 285-303.
- [20] O'Connor, R. C. Smyth, R. Ferguson, E., Ryan, C., & Williams, J. G. (2013). Psychological processes and repeat suicidal behavior: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ation and Clinical Psychology*, 81(6), 1137.
- [21]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22] H. S. Choi et al. (200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8(2), 114-119.
- [23] S. Y. Lee, H. J. Cho, J. H. Kwon & J. S. Lee. (2015).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efeat scale; and Factor construct of defeat and entrap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17-35.
- [24] J. S. Lee & H. J. Cho. (201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l and extranet entrapment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1), 239-259.
- [25] M. S. Shin, K. B. Park, K. J. Oh, & Z. S. Kim.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19.
- [2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27] M. Y. Lee & Y. S. Kim. (2014).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2), 209-220.
- [28] Hawton, K., Sutton, L., Haw, C., Sinclair, J. & Deeks, J. J. (2005). Schizophrenia and suicide: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7, 9-20.
- [29] Hor, K. & Taylor, M. (2010). Suicide and Schizophrenia: A systematic review of rates and risk factors.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4(11), 81-90.
- [30]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Johnson, J. & Tarrier, N. (2009). Are defeat and entrapment best defined as a singl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795-797.
- [31] Gordon, H. (2002). Suicide in secure psychiatric facilities.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8, 408-417.
- [32] Marshall, E., & Brockman, R. N.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flexibility, self-compassion, and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30(1), 60-72.
- [33] Humber, N., Emsley, R., Pratt, D. & Tarrier, N. (2013). Anger as a predic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elf-harm ideation in inmates: A structured self-assessment diary study. *Psychiatry Research*, 210, 166-173.
- [34] Y. J. Jung & Y. H. Shin. (2006). A study on the correctional treatment model for long-term inmat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3-208.
- [35] Muller-Isberner, R., Hodgins, S. (2000). *Violence, crime and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Concepts and*

*methods for effective treatment and prevention.*  
Chichester: Wiley.

- [36] Daffern, M., & Howells, K. (2002). Psychiatric inpatient aggression: A review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assessment approach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477-497.
- [37] H. Y. Kang & E. J. Chang. (2018). Relationship among fail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al ideation of psychiatric inpatients: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461-469.
- [38] M. Y. Nam & O. H. Kweon. (2017). The convergence over effect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ullyingon victim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29-138.
- [39] K. S. Ko, J. S. Lee & C. H. Park. (2017). A study on the educational smart contents of adolescents's gatekeeper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81-197.
- [40] H. S. Kim. (2017). The regional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the pre-elderly/elderly suicide rates and policy tas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291-298.

김 설 환(Kim, Sul-Hwan)

[정회원]



- 2009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6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국립법무병원 임상심리사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범죄심리학
- E-Mail : kksh87@korea.kr

손 정 락(Son, ChongNak)

[정회원]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 1989년 2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관심분야: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 E-Mail : jrson@jbnu.ac.kr